

## ■ 2024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총평

- 회의명 : 2024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1차 무용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13:00~17: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1층 회의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우리 사회와 예술계에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를 대처해 나갈 방법으로 미래 극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위기 대처 방법을 연구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극장을 조성하고, 창작자 및 공연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는 대관 공모에도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사전에 전수검토를 진행한 후, 12월 4일 대면으로 1차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1차 무용 심의 결과, 심의대상 144건 중 74건을 선정하였다. 극장별 선정 건수는 아르코 대극장 총 26건(무용 25건, 기타 1건), 아르코 소극장 총 9건(무용 8건, 다원 1건), 대학로 대극장 총 19건(무용 19건), 대학로 소극장 총 20건(무용 17건, 다원 2건, 기타 1건)이다. 신작 및 재연을 아우르면서 창작 및 제작 계획, 운영 계획, 사회적 역할에 있어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가늠하였으며 그밖에 창작 역량, 예술성, 실연 가능성, 극장 적합성 등과 같은 요소 또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심의위원 5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등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원로에서 신진까지 세대 별로 폭넓게 아우르면서 그 성격 역시 축제, 기획공연, 개별공연과 함께 동문단체, 독립단체 등을 망라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공공 예술극장으로서의 가치를 확립하고자 했다.

연극 분야와의 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단체가 동일 작품으로 전년도에 대관 선정 후 취소했던 경우에는 올해 선정을 지양하였으며, 매년 개최되는 기존 축제들이 포화상태이므로 축제성 공연의 신규 유입이나 확장은 지양할 수밖에 없었다.

예술적 우수성이 돋보인 작품, 리서치 과정이 탄탄한 작품, 무용을 통한 사회적 시각을 담은 작품, 소재의 다양성이 두드러진 작품, 주제와의 연관성이 짙은 작품 등에 우선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창작에 관한 경력을 갖춘 무용가와 무용단을 우선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대극장 및 소극장 공간에 적절하게 어울릴 만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지역이나 소극장에서 펼쳐진 작품이 서울이나 대극장 무대에서 발돋움할 기회를 제공한 사례도 있다. 재공연의 경우 레퍼토리로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대학로 소극장의 경우 총 52건의 심의 건수 중 20건(무용 17건, 다원 2건 기타 1건)을 선정하였는데, 대관 일정은 한정적인 데 비해 가장 많은 지원 수를 보인바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로 인해 비선정된 상당히 아쉬운 건들이 있었다. 최근 들어 계획서의 구체성과 충실도가 중요하게 부각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같은 맥락으로 무용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의식도 보강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 일동